

거룩함 지키기

<데살로니가전서 4:1-12>

1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6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9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11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 묵상하기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바울은 그 해답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3절). 바울이 말하는 지침들은 우상숭배로 인해 영적, 성적,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죄악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위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하고 매력적인 것들이 나의 눈과 마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이라면 즉시 거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드세요(8절).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바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9-12절).

★ 적용하기

가적에서, 학교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잠시 접속하기만 해도 교묘하고 달콤해 보이는 유혹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 세대의 문화에 나도 무분별하게 휩쓸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요즘 내가 보는 것, 따라 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것들인지 솔직하게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 생각하기

-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내 삶 속에서 거룩을 해치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 인터넷과 TV, 모바일 속의 자극적이고 달콤한 유혹들 중 내가 유독 잘 넘어지는 것, 경계할 것은 무엇인가요?